

축 사(안)

원용무애의 창종정신 구현되기를

만물이 생동하며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좋은 절기와 같이, 우리 사회도 어려웠던 지난 시간을 잘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에 대한불교원용종의 창종 40주년을 기념하여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학술 세미나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기에, 감사의 인사와 함께 원용종 전 종도들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불교 원용종을 창종하신 영산당 일공 대조사께서는 창종 이후 부처님의 원용에 귀의정각 하시고 원용의 종단과 종도, 국내외 불교 사부대중에게 원용무애로 대승의 포교를 하시며 매년 국태민안 기원법회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 해외 여러 불교국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자비실천과 불교홍포 및 문화교류를 널리 펼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공 대조사께서는 “지혜와 자비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희망과 자유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누구나 고통 없는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던 증오심과 시기를 버리고 그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 강조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셨던 창종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불교를 주창하시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각성하며, 스스로 증명해내자는 원력의 실천으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후학들도 창종정신을 성심으로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불교 대표기구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 종단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단내적으로는 자체교육기관인 동원불교대학을 설립하여 체계적 도제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세미나는 비단 원용종만의 고민을 넘어 한국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깊이 성찰해 본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와 발전적 방향 제시로 성과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종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총무원장 진호스님과 종도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마음을 드리며, 원용종 창종 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가 성황리에 회향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넓고 단단한 주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1(2017)년 6월 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